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7호 [루체 제25846호] 주제 106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에서 중시하는 다이아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태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인 홍영길동지, 조용원동지, 유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며 새로운 다이아생산 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에서 절실히 바라는 문제를 풀고 나에게 큰 힘을 준 공장로동계급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고, 정말 큰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뜨겁게 배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1968년 1월에 조성한 압록강다이아공장은 주체적다이아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적다이아공업발전의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공장터전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나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압록강다이아공장은 지난 기간 자립적다이아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수많은 각종 다이아들을 광량 생산해내어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거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1년



으며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발휘해나갈 때 이 세상 침범 못할 요새가 없고 쫓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뜻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해 주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역에서 승리적전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적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다이아생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다이아공업발전추세에 맞게 생산공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자재보장대책을 원만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지식형의 인간들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내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4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에 오시였던 역사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압록강다이아공장을 언제나 깊이 관심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생애의 마지막 해에도 공장을 찾아주시고 로동계급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며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제위가 어머없는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다이아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다이아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시기를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각종 다이아들과 새로 개발한 란도로케트자행발사대자의 대형다이아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1월대사변》준비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던 지난 9월 압록강다이아공장에 우리 식 9축자행발사대자의 대형다이아를 무조건 개발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천무적과업을 피륙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자력경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부단치는 예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파란만장한 생산돌격전을 벌여 당이 준 명령을 빛나게 완철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곳로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열의가 비껴있는 대형다이아들을 하나하나 솟아만져보시며 요란하다고, 불수룩 멋있고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무들이 대형다이아개발투를 끝냈다는 보고

를 받은 그날부터 한시바빠 공장에 와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대형투쟁기제생산의 주체화, 국산화실현에서 큰 몫을 한 이 공장로동계급에게 진실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 없던 대형다이아생산공정을 수입설비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보장하여 짧은 기간에 혁명적으로 새로 꾸리고 주요물리기계적성질이 수입산보다 훨씬 우수한 새형의 대형다이아를 훌륭히 만들어낸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투쟁본파와 일본새에서 류달리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당중앙의 이름으로 깊이 머리속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의 로동계급은 올해 계획된 각종 다이아생산투쟁과 새로 개발한 대형다이아생산투쟁을 통하여 당의 결심은 골과락이며 승리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내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자동차를 비롯한 투쟁기제들을 자체로 생산하는것과 함께 그에 필요한 각종 다이아를 우리 힘과 기술,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하면 압록강다이아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다이아생산기기로 전면시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그르히 갖추며 공장안팎을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압록강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의 전투적효소를 높이 받들고 50여일이 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식의 대형다이아를 생산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국땅 북변에 주체화, 현대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 나라 다이아공장의 본보기공장,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을 대규모의 다이아생산기지를 세상이 보란듯이 꾸러놓음으로써 주체공업의 위력,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다 시한번 힘있게 과시하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개건현대화를 위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우리 나라 문전기계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가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개건현대화와 생산을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 관철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가력투력강화의 화선길에서 결집된 피로도 무시사이에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 냥 워 라 쩌 동 지**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 4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라오스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 42년간 라오스정부와 인민은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올바른 지도에 사회주의리념을 고수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선대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공통의 관심과 노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시길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주제106(2017)년 12월 2일

민주공고정당

력사적인 평양선언에 서명

통일된 민주공고인협약이 역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에 서명하였다.

11월 28일에 진행된 당진급특별회의에서는 평양선언발표에 이어 전국위원회 오메르 무스만자-니-문준두가 선언에 서명하였다.

전국위원회장은 민주공고주제 우리 나라 대표부에 서명문건을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6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력사적문건에 서명하고 전달하게 될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한다.

이 문건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와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존중하신 김정일동지, 강국으로서의 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높이 펼쳐가시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우리들의 선물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과 함께 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애국자, 절세의 영웅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대륙간안도로드 《화성-15》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는 특기할 대승소식에 집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정의의 백보검으로 세계를 위락위락하시는 위대한 애국자, 절세의 영웅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들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영애가 하늘을 찌를듯이 부풀어오르고 뿜는 신념이 솟구쳐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올해에 이룩한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와 대륙간안도로드 정장작용 수소탄시험의 성공에 이어 미국본토전역을 라직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안도로드 《화성-15》형시험발사대성공의 영웅적대업은 최세의 원수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만이 인양오실수 있는 특대사건이며 만만년민족사에 공훈자로 영원히 빛날 경사중의 대경사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영원, 강국영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병진의 기치높이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빛나게 성취하시어 미치광이 트립코와 그 주구불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최세의 군사원각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총정의 한마음을 담아 최상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대륙간안도로드 《화성-15》형의 개발완성과 시험발사의 성공을 위해

초인간적인 의지로 생눈길을 헤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비범한 예지와 원대한 지력,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태평을 지니시고 우리 조국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주시었으며 조국방위에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위업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수위인상을 온넋과 겨우로 절감하고있습니다.

조국벌려 이역땅에서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우리 조국의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실현에 넋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해 팔기불 부리며 아우성을 치는 꼴뿔을 보는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축포성을 울릴 그날이 드디어 왔다는 신심이 용암처럼 솟구쳐오르고있습니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원수에 지니시고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실현으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력위협에 총지부들 찍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신념에 넘쳐있습니다.

총련은 세계적인 정치대국, 군사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며 세계정치사에 지주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21세기의 위대한 대영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총장으로 받들어 수방옹위, 조국수호, 총련사수의 관가피싸움을 더욱 즐기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총련에 주신 강령적말씀을 맹목의 보검으로 붙여 귀고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병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입심단결을 바탕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동포군중을 조직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반미대결전이 마지막후계선에 들이선 조선혁명의 요구에 맞게 총련을 봉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최상최대의 념원은 우리의 운명이고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정과 흥조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유쾌전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6(2017)년 11월 30일 일본 도쿄















